

# 특전사령관 “尹, 국회 문 부수고 의원 끄집어내라 지시”

“윤 대통령 비화폰으로 전화해 내란 사태 계엄군 직접 지휘했다”

곽중근 사령관·김현태 707단장 증언...“계엄 관계자들 말 맞춰”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중근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본회의장의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2·3·4·5·6·7·8면>

특히 곽 사령관은 “(2번째 전화 통화에서) 당시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계엄 과정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을 정황과 사실상 계엄군을 지휘했을 정황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의 ‘총·발포 등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곽 사령관은 말했다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당시 3번째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곽 사령관 등이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고, 계엄 관계자들이 ‘말을 맞췄다’는 진술도 나와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 사령관,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과 대화를 나눴고 곽 사령관이 양심 고백을 했다”면서 “곽 사령관이 두 번째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유혈 사태가 방지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곽 사령관은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곽 사령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했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

또 “그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쏘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

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고, ‘알겠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고, 철수할 때 전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공수와 13공수는 누가 대기를 지시했느냐는 질의에는 ‘임무를 부여할 때 제가 지시했다’며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1공수와 3공수, 9공수, 707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예하 4개 부대가 국회와 선관위 등으로 출동했고, 7공수와 13공수는 출동하지 않았다.

곽 사령관은 ‘어제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 소속 검사가 내란 음모 및 실행(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하지 않았느냐는 조국혁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곽중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설특검법 통과...尹 내란수괴 수사 불가피

국힘 친한파 등 23명 찬성표

한덕수·추경호 등 수사 대상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전담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수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상설특검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대상으로 적시했고, 검찰도 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혐의 수괴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287명 중 찬성 210명, 반대 63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상설특검안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 투표로 참예했다. 23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다. 반대 63명은 모두 국민의힘이다.

특검법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특검이 설치되면 수사의 칼날은 윤 대통령을 향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보고 김 장관에 내란중요임무 총사령의 책임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법에는 내란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형법 87조 1호)고 규정돼 있다. 전두환의 경우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국민건강보험은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시범사업 운영 기간: 2023년 7월 ~ 2025년 12월

**보건의료**

- 방문진료 • 방문구강관리 • 다제약물관리 • 건강증진
- 퇴원환자 재가복지 지원 • 만성질환관리 • 호스피스

**장기요양**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재택의료센터

**돌봄**

- 식사·청소관리
- 병행돌봄

**주거**

- 주거환경개선
- 케어안심주택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부산 수영구 • 대구 수성구, 달서구 • 인천 부평구 • 광주 서구, 북구, 광산구 • 대전 대덕구, 유성구

• 경기 성남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 강원 춘천시, 원주시 • 충북 충주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 충남 천안시, 청양군 • 전북 전주, 정읍시 • 전남 목포시, 여수시, 담양군, 영광군

• 경북 포항시, 상주시, 의성군 • 경남 김해시 • 제주 제주시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4년 3월) 2026년 3월, 통합지원 전국 시행 예정

**시범사업 참여 상담 신청**

시범사업 해당지역 관할

-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보건소,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시범사업 안내 및 문의**

지역별 문의처는 QR코드로 확인 (시범사업 안내 게시문)



## “친애하는 한강님” 한국어 호명 한강, 노벨문학상 메달 걸었다

2024년 노벨상 시상식이 10일 오후 4시(현지 시각)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스웨덴과 8시간 시차로 인해 한국 시간으로 10일 밤 12시부터 진행됐다.

<관련기사 16면>  
한국 작가로는 사상 첫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이날 차분한 모습으로 식장에 모습을 보였다. 시상식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행사가 열리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다섯 부문에 대해 이뤄졌다.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임장하는 것으로

시상식이 시작됐으며 뒤이어 부문별 수상자들이 등장했다.

시상은 노벨 재단 아스트리드 비딩 이사장의 간략한 연설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이날 물리, 화학, 생리학·의학에 이어 네 번째로 호명됐다. 각 부문별 수상자 선정 기관의 대표가 짧은 연설 후 수상자 이름을 호명했으며, 스웨덴 국왕이 수상자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노벨문학상 시상 연설은 스웨덴 한림원 종신위원 18명 가운데 한명인 소설가 엘렌 맞손이 맡았으며, 문학상 선정에도 참여했다. 엘렌 맞손은 수상자 국가의 모국어로 작가를 호명하는 관례에 따라 한국어로 한강을 호명했다.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상식이 끝나고 스톡홀름 시청으로 이동해 오후 7시(현지시간) 만찬이 펼쳐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